



2013년 2월 18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글로벌 신용사이클과 한국의 디커플링

• 이머징마켓 동향

홍콩 H지수 소폭 상승, 본토증시 휴장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엘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이노베이션 외 5종목

• 기업분석

다음, 한국콜마, CJ헬로비전, SK하이닉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2/07(목)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02/15(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1.77	1,950.90	1,945.79	1,976.07	1,979.61	1,981.18	
	등락폭	-4.42	19.13	-5.11	30.28	3.54	1.57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5)	490(3)	313(1)	600(4)	482(5)	429(4)
		하락(하한)	411(0)	313(1)	465(1)	231(1)	306(0)	382(3)
	ADR	83.87	86.50	84.48	91.53	94.97	96.79	
	이격도	10 일	99.14	100.10	99.80	101.25	101.35	101.34
		20 일	98.21	99.29	99.19	100.75	100.93	100.99
	투자심리	20	30	3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08	286	304	325	331	575	
	거래대금 (십억 원)	3,511	3,844	2,805	3,617	3,355	3,219	
코스닥	코스닥지수	501.78	504.94	503.72	507.99	512.53	514.58	
	등락폭	-0.78	3.16	-1.22	4.27	4.54	2.05	
	등락종목	상승(상한)	432(8)	575(4)	423(9)	643(5)	632(11)	513(6)
		하락(하한)	480(1)	314(0)	505(0)	268(2)	296(0)	392(3)
	ADR	81.07	83.55	84.35	91.10	95.60	98.55	
	이격도	10 일	99.76	100.42	100.19	100.99	101.69	101.88
		20 일	98.91	99.64	99.49	100.33	101.18	101.50
	투자심리	30	4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21	333	422	429	428	428	
	거래대금 (십억 원)	1,614	1,405	1,473	1,663	1,738	1,86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53.8	831.9	712.7	219.6	76.6	167.4	23.7	21.0	174.1	41.3
	매도	1,713.1	830.1	660.5	134.6	86.5	213.9	29.0	14.8	161.1	36.0
	순매수	-59.3	1.8	52.2	85.0	-9.8	-46.6	-5.3	6.2	13.0	5.3
	02월 누계	-392.5	412.8	-71.6	-62.7	-164.1	-183.2	-24.7	-6.2	371.1	51.3
	13년 누계	684.3	-1,472.2	878.4	33.7	165.0	-507.5	-95.4	-10.2	1,285.5	-90.6
코스닥	매수	1,688.3	90.5	90.3	18.4	8.7	28.2	6.9	3.1	23.0	14.1
	매도	1,709.3	74.3	86.2	14.9	13.7	27.5	4.6	3.6	18.2	13.4
	순매수	-20.9	16.2	4.1	3.5	-4.9	0.8	2.3	-0.6	4.8	0.7
	02월 누계	-192.0	170.7	23.0	16.9	-9.4	9.5	0.1	-11.6	17.1	-1.7
	13년 누계	-337.2	126.8	268.7	29.2	-6.1	99.8	25.3	-31.2	172.4	-58.3

글로벌 신용사이클과 한국의 디커플링

2월 월간 밴드	1,90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6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7.7%P

- ▶ G20 회담: 환율 원론적인 언급. 최근 분위기는 디플레 차단 위한 통화 및 환율 수단을 용인
- ▶ 글로벌 신용사이클: 디커플링의 핵심. 미국 중심으로 회복, 한국은 '12년 이후 매분기 악화
- ▶ 한국의 신용사이클 대응정책 필요. 3월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 주식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세계는 미국과 일본의 단호한 통화정책을 반겨야 한다 - The Economist"

■ G20와 일본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종종 환율전쟁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2010년에는 미국이 중심에 있었고 2013년에는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최근 The Economist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통화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The Economist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환율게임에 대한 국제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 국제여론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The Economist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을 오히려 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이 결국 글로벌 수요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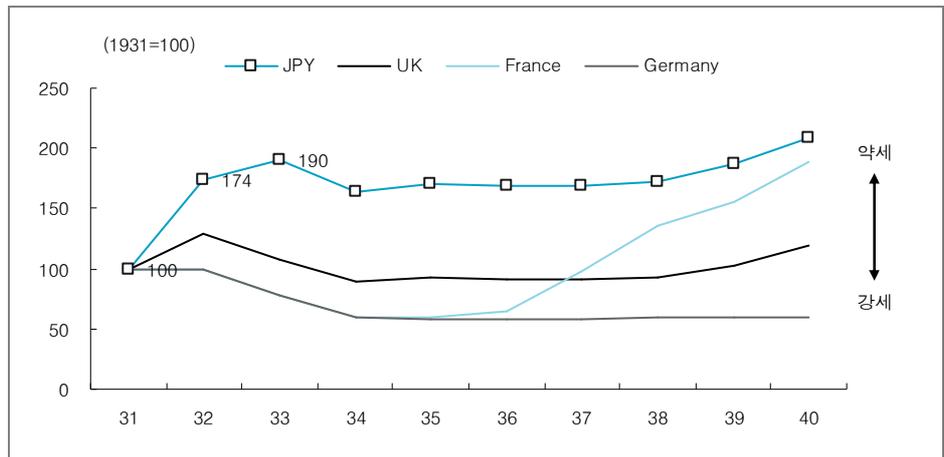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G20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는 지난 G7 회담은 물론 사전에 유출되었던 공동성명서 초안보다 환율전쟁 이슈에 대해 훨씬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심지어 브라질의 재무장관도 일본엔의 약세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Reuters, "G20 set to dilute big powers' demands on currencies", 2013-02-15).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시 상품 수출 국가들은 엔화 약세로 일본 경기가 개선되면 곧이 자국의 이익에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현대 종이화폐제도에서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화폐에 대한 신뢰이다. 현대 화폐제도는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화폐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화폐의 신뢰 측면에서 가치를 절하할때는 특히 자국내 소비자들과 해외 경쟁 국가, 두 주체가 중요하다.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의 실질 소비여력은 떨어지고 해외 경쟁 국가의 경쟁력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국내 소비자와 국제사회, 두 주체로부터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 혹은 암묵적인 용인을 받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명시적으로 1930년대 일본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벤치마크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당시 재무상이었던 다카하시 고레키요의 정책 성공 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쇼와 금융 공황과 1920년대 말 이후 시작된 대공황으로 침체를 겪던 일본 경제는 193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상은 금본위탈피, 막대한 재정투입 등 케인지안에 충실한 정책을 펼쳤고 이때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당초 필자는 엔화 약세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지나친 엔화 약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일본의 역사를 간과한 것으로 1930년대 사례는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엔화의 가치가 고점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엔화 약세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1930년대 초반 주요 국가들의 미국달러대비 환율 - 일본 엔화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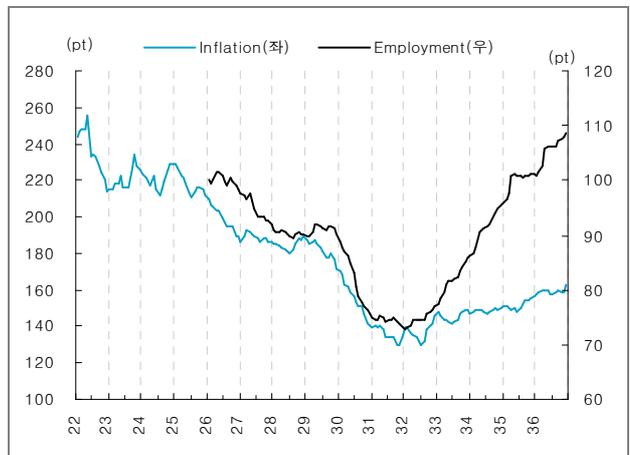
자료: Bank of Japan, 한국투자증권

[그림 2] 1920~1930년대 일본 물가 상승률



자료: Bank of Japan, 한국투자증권

[그림 3] 1920~1930년대 일본 고용과 가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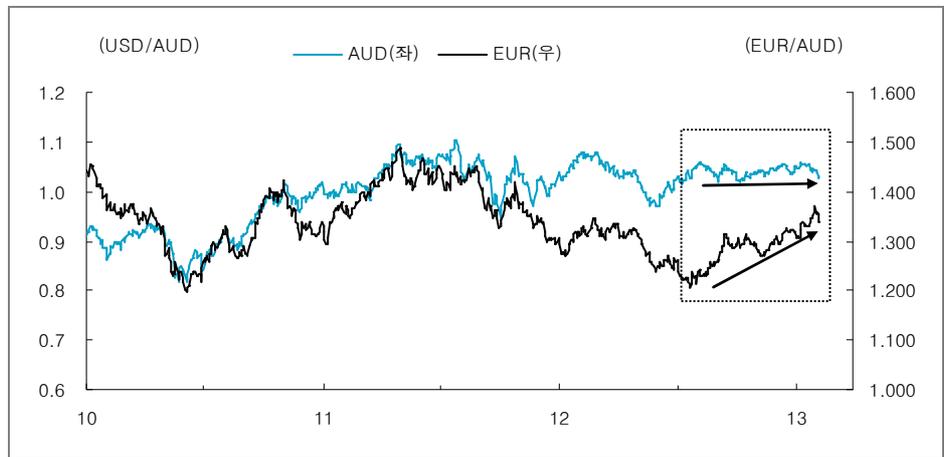
자료: Bank of Japan, 한국투자증권

■ 한국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한 환경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금융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만약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호주달러가 강세이고 유가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위험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이른바 리스크 온/오프 트레이드가 활발했기 때문이고, 리스크 온/오프 트레이드가 활발했던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 리스크 선호도가 크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랐다가 다 함께 빠지는 모습들이 반복된 것이다.

[그림 4] 호주달러와 유로화 비교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런데 최근 들어 리스크 온/오프 트레이드의 공식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유로화가 호주달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시아에서 가장 베타가 높은 증시로 인식되는 한국증시가 글로벌 리스크온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것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선호도의 변화가 과거만큼 중요한 변수가 안될 만큼 리스크 변수들이 안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VIX는 역사적 저점 부근까지 떨어졌고 유로존 국채의 CDS 인덱스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 몇 년간 이례적으로 펼쳐졌던 리스크 온/오프 중심의 트레이딩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자산간 혹은 국가간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디커플링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의 괴리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국가별 신용사이클의 차이를 주목한다. [그림 5~14]번은 주요 국가의 'Flow of Funds' 분석을 통해 경제 3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분기별 총부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low of Funds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미국과 일본, 호주의 총부채는 민간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영국)와 한국은 매분기 총부채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디레버리징 사이클 관점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의 사이클은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이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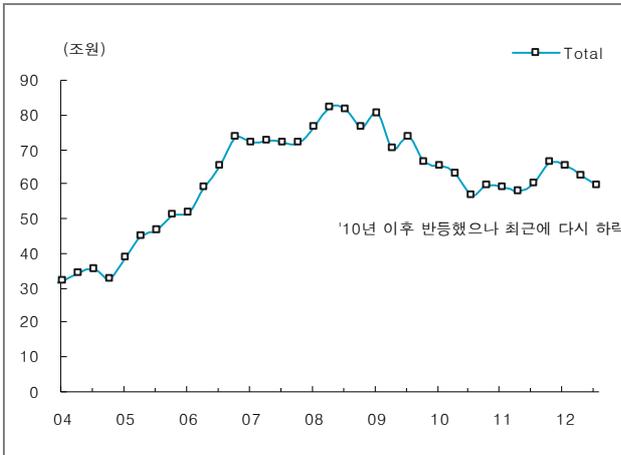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사이클의 차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 통화, 환율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충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2012년 이후 신용 회복 국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한국 증시의 디레버리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벵가드 지수 조정, 일본엔 약세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히고 있다. 필자는 특히 한국의 신용 사이클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뒤처지고 있는 점을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의 출범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 방향과 철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복지와 관련한 담론은 한국의 시대적, 구조적 상황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신용사이클이 다른 국가들보다 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는 정책이 얼마나 전개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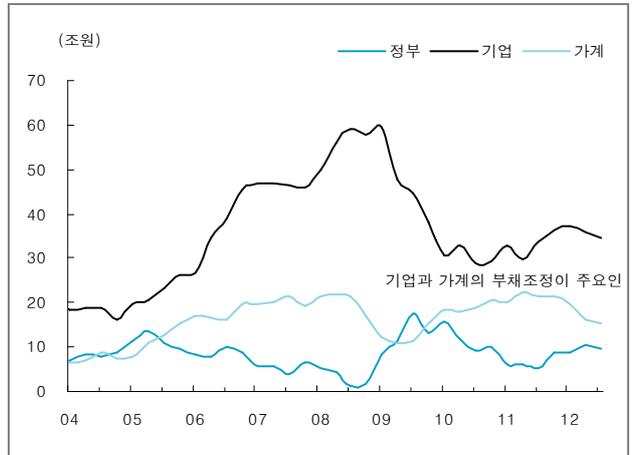
그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통위에 주식시장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유지하기 보다 한국 자체의 신용사이클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때,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도 해소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총부채 증감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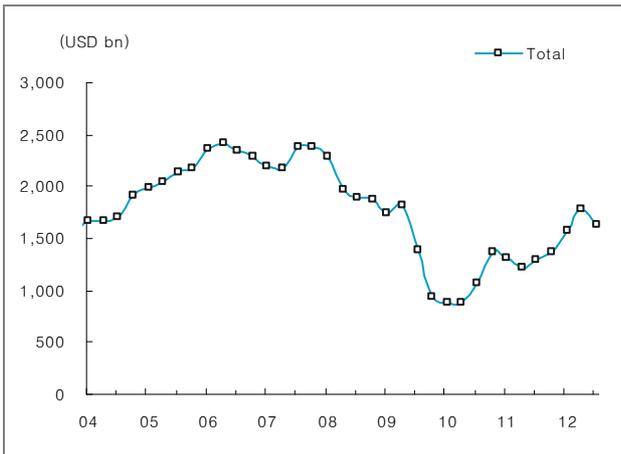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주체별 총부채 증감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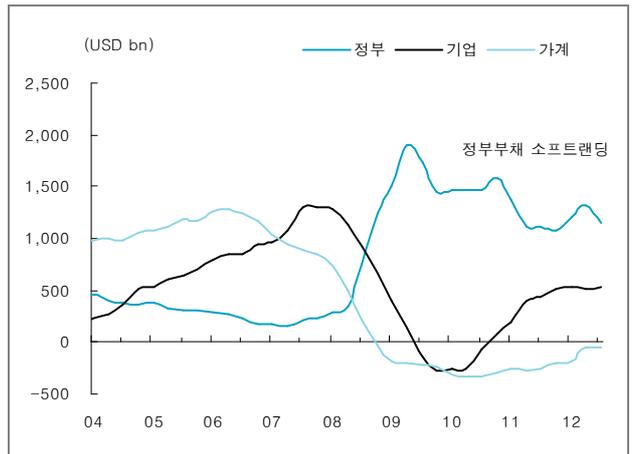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총부채 증감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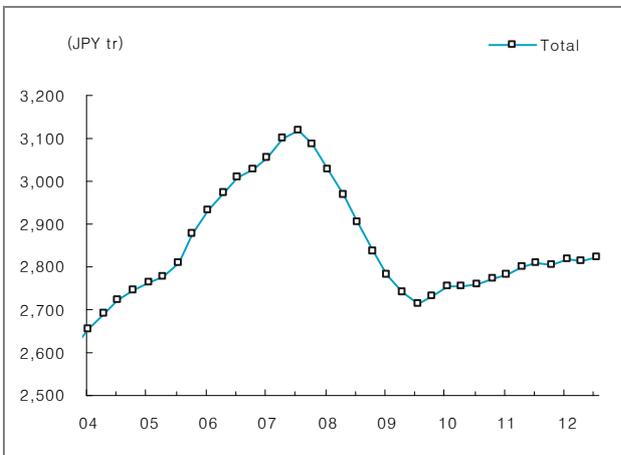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주체별 총부채 증감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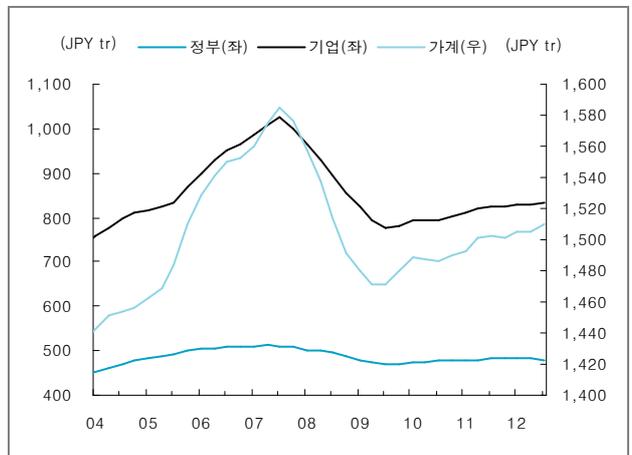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총부채 증감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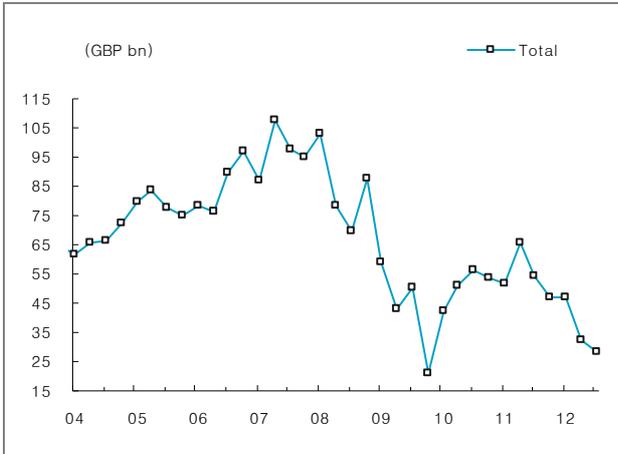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주체별 총부채 증감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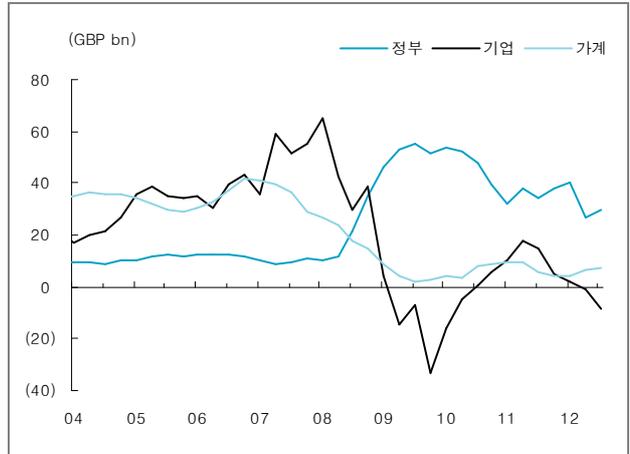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총부채 증감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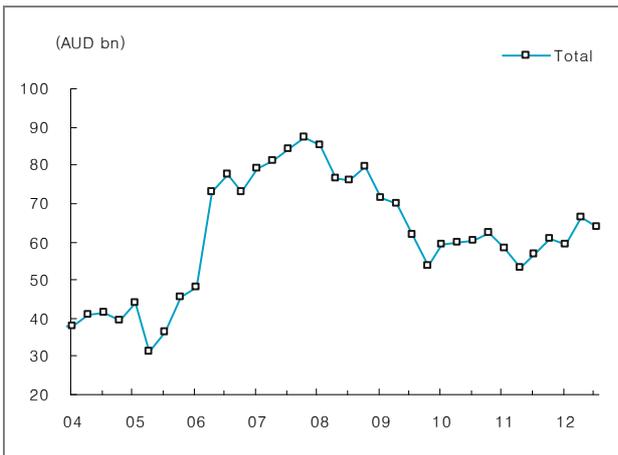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주체별 총부채 증감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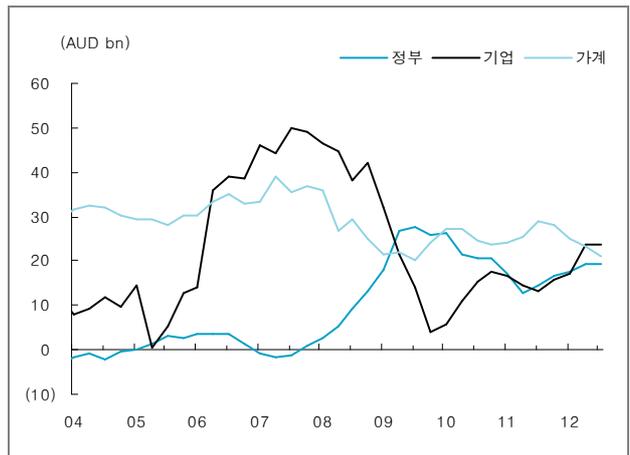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총부채 증감 - 호주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주체별 총부채 증감 - 호주



자료: 각국 Flow of Funds, 한국투자증권

홍콩 H지수 소폭 상승, 본토증시 휴장

- ▶ 중국, 지난해 중국인 해외 관광객 850억 달러 소비 - 미국 워싱턴포스트
- ▶ 중국 국가관광국, 지난해 중국인 해외 관광객 8천만 명 상회, 전년 대비 15% 증가
- ▶ 중국, 춘절 연휴 기간 중 중국인 한국 관광객 약 6만 3천명 방문 추산 - 신화망

■ 중국 시장

15일까지 휴장

춘절 연휴로 11일~15일까지 휴장. 18일 개장 예정.

■ 홍콩 시장

H지수 소폭 상승 마감.
자동차, 보험주 강세 지속.
은행, 운송, 음식료주는
하락

홍콩 H지수는 소폭 올라 이틀째 강세를 유지했다. 약세 개장 후 상승세로 전환해 강보합권에 머물렀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는 우호적인 재료였지만 유로존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 부진과 다음주 중국 본토증시 개장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업과 보험, 자동차, 전자, IT, 건설, 유틸리티, 석유/천연가스, 여행, 철강/비철금속, 유통, 석탄, 섬유/의류, 통신, 헬스케어 등이 올랐다. 종목별로는 1월 자동차판매 증가에 힘입어 BYD와 길리자동차가 7% 이상 급등했고 신화보험, 중연중과, 동풍그룹, 안휘콘치시멘트, 중국인수보험, 중국원양, 시노펙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은행, 운송, 광업, 미디어, 음식료주는 내렸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2/15(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432.40	휴장	0.55	1.97	7.20
홍콩 H	11,845.20	0.20	0.27	-2.35	3.58
인도 SENSEX	19,432.56	-0.33	-0.27	-2.32	0.03
러시아 RTS	1,583.35	-0.31	-0.43	-2.39	3.69
브라질 보베스파	58,077.31	-0.56	-2.30	-2.82	-4.72
베트남 VN	494.03	휴장	2.19	2.97	19.41
MSCI 이머징마켓	1,065.84	0.09	0.47	-0.30	1.01

주: 15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속 코스피는 1,980P선에 안착

- 미국 증시는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경계심리가 지속된 가운데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성장을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방어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러시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1,980P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지루한 장세를 연출.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부의 발전설비용량 확대 기조의 수혜주로 부각된 한전KPS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FPCB용 특수 일렉포일 생산능력을 두 배로 증설한 일진머티리얼즈도 급등세를 보임. 지문인식 입력장치인 바이오트랙패드(BTP)의 일본 공급이 확정된 크루셜텍과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에이텍의 강세도 돋보임. 한편, 방글라데시 교육센터 건설공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에 신한이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울진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해왔던 동양건설은 입찰 서류 조작으로 공사 수주계약 무효 통보를 받으며 급락

종목/테마	내 용
한전KPS(051600) ▶54,400(+5.22%)	정부정책 수혜에 따른 안정적인 외형 성장 전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확대 기조와 해외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2,710억원, 영업이익은 13.5% 감소한 42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
일진머티리얼즈(020150) ▶8,560(+6.87%)	연성회로기판용 특수 일렉포일 생산능력 확대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태블릿PC의 연성회로기판(FPCB)용 특수 일렉포일 생산개파를 2배로 증설 완료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이에 따라 연간 550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올해부터 연 1,200톤으로 2배 이상 확대돼 수입대체효과 및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크루셜텍(114120) ▶9,950(+8.15%)	BTB 일본 공급 확정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메이저 스마트폰 기업에 지문인식 입력장치인 BTP(바이오트랙패드)공급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1차로 60만대 가량 납품할 예정이며 이후 출시될 또 다른 모델에도 BTP 탑재가 확실시 되어 연내 500~600만대 가량 공급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에이텍(045660) ▶4,320(+9.23%)	경제민주화 정책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카드 솔루션, PC 및 모니터, SI(시스템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급등세 - 공공기관에 대기업 PC 납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10년 만에 교통카드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엘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엘 (005850)	15,650 (+16.4)	13,450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0,150 (+26.7)	8,010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5,200 (-7.9)	16,500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LG (003550)	62,500 (-6.7)	67,00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이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MDS테크 (086960)	15,550 (+15.2)	13,5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용할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장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4,850 (+9.2)	13,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롤러크레인 트럭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럭수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계로 원가경쟁력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이노베이션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이노베이션 (096770)	177,000 (+3.8)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9.5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9,100 (+4.4)	18,300 (1/21)	578	58	49	2,156	8.9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76,000 (+1.5)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2.5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커피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87,300 (-8.1)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6.8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등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498,000 (-4.9)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1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46,500 (+8.4)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8.7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NHN, SK이노베이션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음(035720)

매수(유지)
목표가: 138,000원(유지)
종가(2/14): 103,000원

자체 검색광고 플랫폼 순항 중

■ What's new: 2013년 가이드선과 주주이익 환원정책

다음은 2013년 가이드선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20~22%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20%를 제시했다. 검색광고 매출은 전년대비 40~45% 성장하고, 디스플레이광고 매출은 전년 증가율(10.7%) 대비 약간 낮게 증가하며, 게임 매출은 전년대비 25~30% 성장을 예상했다. 검색광고 매출 총액 인식과 네트워크 매출도 수익성 하락 요인이며, 모바일앱과 마이피플, 브랜드 마케팅과 퍼블리싱 게임 및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5%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은 22%, 영업이익률은 22.3%, 마케팅비용은 매출액의 3.4%로 전망한다. 2012년 실적에 대한 주주이익환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년 금액 (216억원 현금 배당) 이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자사주 취득과 현금 배당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 Positives: 검색광고 플랫폼 전환으로 광고주수 증가와 검색광고 단가 상승

검색 광고주수는 작년 10월대비 4만명 증가한 18만명 이상으로 늘었고, 검색광고 PPC(키워드 단가; Price Per Click)도 작년 10월 오버추어 대비 30% 이상 상승해 검색광고 플랫폼 전환 성과는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RPS(Revenue Per Search)도 오버추어의 작년 3분기 수준을 상회한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광고 매출은 2012년에 전체 광고 매출의 7%였는데, 2013년에는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Negatives: 4분기 실적은 1회성 비용 등으로 추정치 하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172억원과 219억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각각 2.6%, 11.5% 하회했다.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직원안식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분기대비 18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세전이익도 178억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34% 하회했는데, 자회사 핑거터치에 대한 영업권 손상 차손 43억원과 기부금 13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이코스 매각대금에 대한 대손충당금(59억원) 추가 설정으로 중단사업순손실이 45억원 발생했다.

■ 결론: 검색광고 매출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 '매수' 유지

다음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8,000원(12개월 forward EPS 8,027원에 목표 PER 16배 적용)을 유지한다. 1) 검색광고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금년 검색광고 매출은 전년대비 43% 늘어날 전망이다. 2)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집행은 연초 예상보다 적었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만큼 모바일, 게임 등 서비스가 준비됐다는 의미로 단기 실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3) 2013년 PER은 12.9배로 PER 밴드 하단 수준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0	117	(2.6)	120	7.0	(0.3)	553	534
영업이익	25	22	(11.5)	25	(1.4)	(20.0)	123	118
영업이익률(%)	20.6	18.7	-	20.6	-	-	22.3	22.1
세전이익	27	18	(34.0)	27	(30.7)	(19.5)	129	131
순이익	26	14	(46.5)	22	(27.8)	25.6	107	100

*상기 보고서는 2013년 2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콜마(161890)

매수(유지)
목표가: 33,000원(유지)
종가(2/14): 27,350원

예상대로 영업이익 대폭 개선

■ What's new : 예상대로 화장품 업종내 가장 뛰어난 실적 시현

3분기(3월 회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856억원(10.7% YoY)과 76억원(156.3% YoY, OPM 8.9%)을 시현했다. 2013년 1월 20일자 preview에서 예상한대로 4분기 화장품 업종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시현했다. 영업이익은 2012년 12월 KIS 추정치 대비 13%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년대비 화장품 매출은 5.2%, 제약 ODM은 24.5% 증가했다.

■ Positives : 화장품 품목믹스 개선과 제약 ODM 사업 강세로 수익성 대폭 개선

화장품 품목믹스 개선과 고수익 제약 ODM 사업의 turn-around 지속으로 전체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5.1%p나 개선되었다. 한때, 약가인하로 인한 전방사업 위축과 R&D 비용 급증이 겹쳐 실적이 부진했으나, 제약 ODM 사업은 이제 완벽히 턴어라운드했다. 약가인하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형 제약사들의 위탁생산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제약 ODM 사업 강세가 전체 외형 및 수익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Negatives : 화장품 외형성장 둔화는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부진

화장품 매출 성장이 5.2%에 그쳐 외형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2011년 3분기 저수익 전략품목의 일시적인 납품증가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대신, 2012년부터 저수익 품목을 정리한 결과 오히려 전체 영업이익률은 대폭 개선되었다.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 소멸과 신제품 출시 본격화로 화장품 성장률이 20%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 우려가 있지만, ODM 의존도가 높은 매스채널 성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이다(원 브랜드숍 16% YoY, 온라인 15% YoY vs. 면세 제외 전체 시장 성장 5.3% YoY).

■ 결론 : 견고한 실적과 중국 모멘텀 고려하여 LG생활건강과 더불어 top-pick 유지

LG생활건강과 더불어 한국콜마를 업종 top-pick으로 제시하고 목표주가 33,000원(2013년 EPS에 역사적 최고 PER 24배 적용)을 유지한다. 투자근거는 1) 경기침체 속 견고한 본사 실적 모멘텀과 2) 자회사인 중국법인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 진입(2012년 매출 70억원, 손익분기점 돌파 vs. 2013년 매출 200억원, OPM 7% 예상) 등이다. 한편 현재 홀딩스에 편입되어 있는 썬바이오텍/푸디팜(건강기능식품, 2012년 매출 903억원, OPM 15% 예상)을 향후 한국콜마가 흡수합병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외형성장/마진제고(신주발행 고려한 2014년 순 EPS 증가율 27%)가 기대되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확정사안은 아님).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87	86	(1.1)	89	(6.8)	10.7	375	366
영업이익	7	8	3.3	7	(34.7)	156.4	27	27
영업이익률(%)	8.5	8.9		7.8			7.4	7.2
세전이익	4	7	73.4	6	(32.7)	233.6	24	24
순이익	3	6	91.7	6	(31.1)	195.1	21	21

주: 3월 회계 결산

*상기 보고서는 2013년 2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헬로비전(037560)

매수(유지)
목표가: 19,000원(유지)
종가 (2/14): 14,800원

외형은 확대, 수익성은 부진

■ What's new: 일회성 비용 제외시 예상치 상회

CJ헬로비전의 12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9.7%, 7.8% 늘어 각각 2,799억원, 331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신사업인 알뜰폰(MVNO) 사업과 TVing을 통한 매출액이 급증했고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홈쇼핑수수료)이 42% 늘었으며 전체 가입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50만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지 않은 이유는 4분기에 알뜰폰 가입자가 8만명 늘었고 이중 25%가 LTE 가입자라 관련 유치 비용이 늘었으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36억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상회했다.

■ Positives: 전체 가입자 및 ARPU 증가

12년 4분기 방송 부문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율이 44%로 전년동기 대비 7.8%p 상승했고 가입자당 VoD 매출액이 12년 1분기 1,600원에서 2,2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5만명, 8.5만명, 15.1만명 증가했다. 13년에도 개별 케이블 SO(System operator)를 적극적으로 인수해 나갈 계획이고 마케팅을 통한 결합 서비스 강화해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3년 전체 가입자는 전년 대비 35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 Negatives: 알뜰폰 사업에 따른 수익성 부진, 인터넷 ARPU 감소

12년부터 시작된 알뜰폰 사업의 적자(12년 380억원)로 12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5.7%p 하락했다. 알뜰폰 사업은 가입자 이탈 방지 효과 있을 수 있으나 13년에도 적자가 지속돼 13년 영업이익률은 13.8%로 전년 대비 3.0%p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ARPU가 11년 4분기 16,457원에서 12년 4분기에 15,605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13년에도 결합률을 높이기 위해 10% 정도의 ARPU 감소를 용인할 계획이다.

■ 성장성은 지속되나 주가 상승에 시간이 필요

CJ헬로비전의 주가는 낮은 valuation(13년 PER 10배)에도 오버행 리스크로 상장 이후 공모가(16,000원)를 밀돌고 있다. 하지만 13년 말에는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CJ헬로비전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9,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3년 EBITDA에 목표 EV/EBITDA 5.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1) 디지털 전환율 상승 및 VoD 매출액 증가에 따라 13년 방송 ARPU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2) 적극적인 M&A를 통해 가입자 규모를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3) 매출과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이 13년 13.1%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39.7	279.9	16.7	260.6	29.4	59.7	1,114.3	1,091.5
영업이익	31.6	33.1	4.8	40.5	(23.5)	7.8	153.5	163.5
영업이익률(%)	13.2	11.8		15.5			13.8	15.0
세전이익	27.8	26.7	(4.2)		(29.4)	33.7	126.2	
순이익	22.2	24.9	11.9	44.2	(18.1)	85.6	100.9	108.2

*상기 보고서는 2013년 2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원(유지)
종가(2/14): 25,700원

PC DRAM의 반격: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지속

■ 1Q OP 전망 2,370억원으로 상향, 주가 상승 모멘텀 강화

PC DRAM 가격 강세 지속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상향한다. SK하이닉스의 1Q OP를 2,370억원(이전 전망 920억원, 158%)으로 상향하고 2013년 연간 OP도 1.56조원(이전 전망 1.09조원, 43%)으로 높인다. 특히, 1Q OP에 대해서는 회사의 가이던스도 보수적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OP 1,100억원으로 낮은 만큼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클 것으로 본다. 목표주가 32,000원은 2013년말 BPS 16,089원에 호황기 평균 PBR 수준인 2.0배를 적용했다.

■ 춘절 이후에도 PC DRAM 가격 상승 지속

2012년말부터 시작된 DRAM Contract 가격 상승세가 춘절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PC DRAM의 대표제품인 DDR3 4GB 모듈은 4Q12 \$15.7에서 1Q13 \$20.0으로 28% QoQ 상승할 전망이다. 2월 상반기 \$20로 오른 후, 2월 하반기에는 \$21 이상으로 상승하고 3월에는 \$23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DRAM ASP가 1Q에 -3% QoQ로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8% QoQ 상승할 것으로 변경한다.

■ PC DRAM 공급 감소로 PC업체들의 DRAM 확보 경쟁 본격화

2012년 하반기 PC DRAM 가격이 급락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RAM의 비중을 높이고, PC DRAM의 비중을 줄였다. 2013년에는 DRAM bit growth가 27% YoY로 낮은 만큼 모바일 DRAM의 수요 우선 대응으로 PC DRAM의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PC 수요는 계절적인 약세이지만, 2013년 PC DRAM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DRAM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PC업체들은 1) DRAM 재고를 경쟁업체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2) DRAM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여 PC DRAM 생산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 2013년 모바일 DRAM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PC DRAM 공급 축소

1Q에 중국 스마트폰 과잉 재고 및 애플 아이폰5 판매 부진에 따른 SK하이닉스 모바일 DRAM 판매 및 ASP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용 모바일 DRAM 및 NAND는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하반기 애플의 중저가 제품 출시에 따른 모바일 메모리의 수혜를 기대한다. SK하이닉스가 모바일 DRAM 매출 비중 확대(2012년 29% → 2013년 40%)를 위해 모바일 DRAM bit growth를 135% YoY로 높이고, PC DRAM bit growth는 -15% YoY로 낮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2,106	3,001	2,666	2,621	4,440	NM	6,151	5.4	2.9	1.8	39.2
2011A	10,396	369	45	(57)	(96)	NM	3,836	NM	4.7	1.7	(0.7)
2012F	10,162	(227)	(199)	(158)	(232)	NM	3,063	NM	7.4	1.8	(1.8)
2013F	11,646	1,555	1,510	1,295	1,822	NM	4,935	14.1	4.3	1.6	12.2
2014F	11,755	1,881	1,770	1,517	2,128	16.8	5,673	12.1	3.5	1.4	12.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2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2/07(목)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02/15(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1.77	1,950.90	1,945.79	1,976.07	1,979.61	1,981.18	
	등락폭	-4.42	19.13	-5.11	30.28	3.54	1.57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5)	490(3)	313(1)	600(4)	482(5)	429(4)
		하락(하한)	411(0)	313(1)	465(1)	231(1)	306(0)	382(3)
	ADR	83.87	86.50	84.48	91.53	94.97	96.79	
	이격도	10 일	99.14	100.10	99.80	101.25	101.35	101.34
		20 일	98.21	99.29	99.19	100.75	100.93	100.99
	투자심리	20	30	30	3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08	286	304	325	331	575	
거래대금 (십억 원)	3,511	3,844	2,805	3,617	3,355	3,219		
코스닥	코스닥지수	501.78	504.94	503.72	507.99	512.53	514.58	
	등락폭	-0.78	3.16	-1.22	4.27	4.54	2.05	
	등락종목	상승(상한)	432(8)	575(4)	423(9)	643(5)	632(11)	513(6)
		하락(하한)	480(1)	314(0)	505(0)	268(2)	296(0)	392(3)
	ADR	81.07	83.55	84.35	91.10	95.60	98.55	
	이격도	10 일	99.76	100.42	100.19	100.99	101.69	101.88
		20 일	98.91	99.64	99.49	100.33	101.18	101.50
	투자심리	30	4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21	333	422	429	428	428	
거래대금 (십억 원)	1,614	1,405	1,473	1,663	1,738	1,86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53.8	831.9	712.7	219.6	76.6	167.4	23.7	21.0	174.1	41.3
	매도	1,713.1	830.1	660.5	134.6	86.5	213.9	29.0	14.8	161.1	36.0
	순매수	-59.3	1.8	52.2	85.0	-9.8	-46.6	-5.3	6.2	13.0	5.3
	02월 누계	-392.5	412.8	-71.6	-62.7	-164.1	-183.2	-24.7	-6.2	371.1	51.3
	13년 누계	684.3	-1,472.2	878.4	33.7	165.0	-507.5	-95.4	-10.2	1,285.5	-90.6
코스닥	매수	1,688.3	90.5	90.3	18.4	8.7	28.2	6.9	3.1	23.0	14.1
	매도	1,709.3	74.3	86.2	14.9	13.7	27.5	4.6	3.6	18.2	13.4
	순매수	-20.9	16.2	4.1	3.5	-4.9	0.8	2.3	-0.6	4.8	0.7
	02월 누계	-192.0	170.7	23.0	16.9	-9.4	9.5	0.1	-11.6	17.1	-1.7
	13년 누계	-337.2	126.8	268.7	29.2	-6.1	99.8	25.3	-31.2	172.4	-58.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철강및금속	2,088	금융업	-9,825
은행	1,675	운수장비	-9,252
전기,전자	1,640	통신업	-6,281
현대중공업	11,059	현대차	-20,161
LG전자	8,464	KODEX 200	-4,841
제일모직	7,528	KT	-4,049
현대제철	6,100	오리온	-3,190
대우인터내셔널	2,132	대한항공	-3,054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통신업	4,326	화학	-677
전기가공업	1,085	음식료품	-552
운수장비	1,056	철강및금속	-464
SK텔레콤	3,760	삼성전자	-1,622
KODEX 레버리지	1,959	POSCO	-694
기아차	1,232	하나금융지주	-641
한국가스공사	1,214	CJ	-607
LG이노텍	866	OCI	-603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화학	3,292	전기,전자	-10,185
서비스업	2,071	운수장비	-4,066
운수장비	2,056	통신업	-2,794
LG전자	9,473	삼성전자	-11,411
현대중공업	5,319	KT	-3,710
현대제철	4,459	삼성SDI	-3,642
SK이노베이션	3,365	대한항공	-3,234
S-Oil	2,628	고려아연	-2,957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36,156	운수장비	-18,423
운수장비	20,302	유통업	-8,181
금융업	16,187	통신업	-7,397
현대중공업	31,138	현대차	-20,257
KB금융	22,756	롯데쇼핑	-9,020
LG전자	17,421	대한항공	-7,280
삼성전자	15,635	삼성SDI	-6,534
현대제철	13,840	금호석유	-5,242
KODEX 인버스	13,606	현대모비스	-4,981
LG디스플레이	10,578	KT	-4,877
제일모직	7,678	현대하이스코	-4,495
S-Oil	7,661	GS건설	-4,043
삼성생명	7,008	삼성증권	-3,91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36,156	운수장비	-18,423
운수장비	20,302	유통업	-8,181
금융업	16,187	통신업	-7,397
현대중공업	31,138	현대차	-20,257
KB금융	22,756	롯데쇼핑	-9,020
LG전자	17,421	대한항공	-7,280
삼성전자	15,635	삼성SDI	-6,534
현대제철	13,840	금호석유	-5,242
KODEX 인버스	13,606	현대모비스	-4,981
LG디스플레이	10,578	KT	-4,877
제일모직	7,678	현대하이스코	-4,495
S-Oil	7,661	GS건설	-4,043
삼성생명	7,008	삼성증권	-3,919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49,284	금융업	-55,058
화학	12,691	운수장비	-32,786
음식료품	11,605	통신업	-14,878
삼성전자	41,368	KB금융	-70,280
오리온	10,739	현대중공업	-37,997
SK하이닉스	10,123	LG디스플레이	-11,716
신한지주	7,899	KT	-8,724
LG화학	7,087	한국전력	-6,196
현대모비스	6,128	S-Oil	-5,500
호텔신라	6,109	SK이노베이션	-5,228
삼성전자우	6,092	SK텔레콤	-5,177
롯데쇼핑	5,076	제일모직	-4,835
NHN	4,912	KODEX 레버리지	-4,02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399	인터넷	-1,633
오락,문화	1,073	IT부품	-1,358
도매	706	출판,매체복제	-986
컴투스	1,841	다음	-1,632
파라다이스	1,548	인터플렉스	-1,506
골프존	1,267	게임빌	-1,444
루멘스	828	한국사이버결제	-1,329
네패스	680	에스엠	-986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3,427	사업지원	-1,770
IT부품	1,788	도매	-564
계약	1,566	금속	-487
이노칩	1,332	파트론	-2,213
메디투스	1,325	모두투어	-941
웹젠	1,115	하나투어	-829
서울반도체	1,002	바이오랜드	-589
다음	920	마크로젠	-54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509	소프트웨어	-807
기계,장비	140	전문기술	-461
디지털컨텐츠	97	IT부품	-455
네패스	209	한글과컴퓨터	-523
서울반도체	162	CJ E&M	-365
미래나노텍	138	파트론	-330
유아아이디	130	옵트론텍	-195
툽텍	127	다음	-189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48	소프트웨어	-2,232
도매	213	IT부품	-498
사업지원	198	전문기술	-385
이엘케이	799	파트론	-2,832
옵트론텍	693	한국사이버결제	-2,063
플렉스컴	616	실리콘웍스	-526
멜파스	578	에스에프에이	-326
서울반도체	289	덕산하이메탈	-32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5,653	소프트웨어	-4,282
디지털컨텐츠	5,234	IT부품	-3,504
오락,문화	2,616	전문기술	-2,157
컴투스	3,371	파트론	-8,455
파라다이스	2,938	한국사이버결제	-4,661
서울반도체	2,658	인터플렉스	-2,113
네패스	1,756	CJ E&M	-2,031
옵트론텍	1,523	하나투어	-1,308
웹젠	1,507	다음	-1,134
이노칩	1,459	게임빌	-1,076
씨젠	1,355	인탑스	-980
우리이티아이	1,240	GS홈쇼핑	-975
골프존	1,176	현대아이비티	-891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950	인터넷	-5,140
반도체	4,906	출판,매체복제	-1,474
계약	4,178	도매	-1,299
파트론	7,521	다음	-5,143
에이블씨엔씨	3,275	인터플렉스	-2,257
셀트리온	2,874	컴투스	-1,694
다날	2,547	휴비츠	-1,327
파라다이스	2,402	에스엠	-1,306
유진테크	2,272	이노칩	-1,295
서울반도체	2,212	실리콘웍스	-1,156
슈프리마	1,837	씨티씨바이오	-767
하나투어	1,268	스페코	-733
플렉스컴	1,246	크로바하이텍	-4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세아시멘트	24 일	한국셀석유	32 일
쌍용양회	24 일	락앤락	19 일
대교	19 일	OCI	11 일
한국단자	18 일	현대모비스	10 일
한일시멘트	14 일	현대글로벌비스	10 일
대상	13 일	POSCO	8 일
동양기전	12 일	고려제강	6 일
에스엘	9 일	부광약품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41 일	하이록코리아	15 일
멜파스	14 일	셀트리온	15 일
한국토지신탁	9 일	파트론	13 일
루멘스	7 일	태광	9 일
태웅	5 일	시그네텍스	9 일
KH바텍	5 일	동진세미켄	8 일
서부T&D	4 일	덕산하이메탈	8 일
미래나노텍	4 일	포스코엠텍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39,852	삼성전자	220,058
SK이노베이션	83,344	현대차	126,620
기아차	77,352	삼성전자우	52,157
KODEX 200	76,377	SK하이닉스	43,369
SK하이닉스	68,223	NHN	40,244
LG전자	64,126	POSCO	34,332
LG디스플레이	50,609	LG생활건강	27,461
현대제철	48,993	OCI	20,16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컴투스	13,599	파트론	19,578
루멘스	4,630	다날	11,943
골프존	4,612	셀트리온	9,681
위메이드	3,454	파라다이스	8,206
고영	3,024	하나투어	7,418
네페스	2,784	덕산하이메탈	7,112
세코닉스	2,714	슈프리마	6,339
옵트론텍	2,713	CJ E&M	6,13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전기,전자		36,156	49,284
화학		2,152	12,691
철강및금속		6,657	3,019
삼성전자		15,635	41,368
LG전자		17,421	384
SK하이닉스		3,806	10,123
호텔신라		4,164	6,109
삼성생명		7,008	1,097
NHN		1,894	4,912
대우인터내셔널		2,617	2,972
에스엘		4,364	191
대우조선해양		3,945	398
롯데케미칼		951	2,788
합	계		
		85,440	14,843
		9,676	57,003
		17,805	13,929
		10,273	8,105
		6,806	5,590
		4,556	4,343
		4,556	3,739

KOSDAQ			
종	목	기	관
반도체		5,653	4,906
디지털컨텐츠		5,234	2,528
제약		733	4,178
파라다이스		2,938	2,402
서울반도체		2,658	2,212
다날		952	2,547
에이블씨엔씨		15	3,275
유진테크		596	2,272
플렉스컴		867	1,246
슈프리마		223	1,837
비에이치		1,139	821
메디톡스		942	935
웹젠		1,507	74
합	계		
		10,559	7,762
		4,911	5,340
		4,869	3,499
		3,291	2,868
		2,112	2,061
		1,959	1,877
		1,58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농산물선물(H)	14 일	한솔제지	13 일	STS반도체	9 일	인터플렉스	10 일
TIGER S&P500선물(H)	14 일	대교	13 일	하이록코리아	7 일	코미팜	8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3 일	아세아시멘트	9 일	다음	7 일	KCC건설	6 일
코오롱	12 일	KT	8 일	OCI머티리얼즈	7 일	에스엠	6 일
일진전기	12 일	기아차	7 일	오스템임플란트	6 일	실리콘웍스	6 일
OCI	11 일	세종공업	7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서부T&D	5 일
제일기획	11 일	KODEX 철강	7 일	동국산업	5 일	포스코 ICT	5 일
성진지오택	11 일	대한유화	6 일	차바이오펜	5 일	오성엘에스티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56,118	현대중공업	-125,211	CJ오쇼핑	-8,939	인터플렉스	-5,043
현대차	-33,643	KB금융	-67,236	CJ E&M	-8,047	휴비츠	-4,302
삼성전자우	-33,291	KODEX 200	-65,652	다음	-7,688	실리콘웍스	-3,885
KT	-31,900	LG디스플레이	-53,998	하나투어	-5,424	에스엠	-3,230
현대모비스	-31,426	KT	-50,785	덕산하이메탈	-3,730	코오롱생명과학	-3,138
SK텔레콤	-28,054	한국전력	-37,012	에이블씨엔씨	-3,661	다음	-2,439
아모레퍼시픽	-27,812	삼성화재	-27,345	코오롱생명과학	-2,604	멜파스	-1,405
CJ제일제당	-26,427	GS	-22,829	바이오펜	-1,848	게임빌	-1,36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합 계	종 목	KOSDAQ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7,397	-14,878	-22,275	인터넷	-1,029	-5,140	-6,168		
섬유, 의복	-1,866	-525	-2,392	소프트웨어	-4,282	-156	-4,439		
-	-	-	-	출판, 매체 복제	-746	-1,474	-2,219		
현대차	-20,257	-226	-20,483	다음	-1,134	-5,143	-6,278		
KT	-4,877	-8,724	-13,601	한국사이버결제	-4,661	-318	-4,979		
GS	-1,905	-3,131	-5,036	인터플렉스	-2,113	-2,257	-4,370		
현대하이스코	-4,495	-482	-4,977	에스엠	-850	-1,306	-2,156		
LG유플러스	-2,545	-977	-3,523	씨티씨바이오	-650	-767	-1,417		
현대상선	-2,095	-1,416	-3,511	코오롱생명과학	-603	-408	-1,011		
LG	-972	-2,385	-3,357	CJ오쇼핑	-617	-138	-754		
한진해운	-1,429	-925	-2,355	SK브로드밴드	-622	-96	-718		
우리금융	-264	-1,697	-1,961	제이콘텐츠리	-454	-190	-645		
현대백화점	-992	-706	-1,698	차바이오펜	-582	-33	-61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6	24,256	
현대중공업	46	9,670	
POSCO	21	7,728	
LG전자	95	6,979	
기아차	118	6,388	
SK하이닉스	224	5,722	
LG생활건강	6	3,500	
한솔테크닉스	135	2,520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에이블씨엔씨	35	2,345	
에스에프에이	33	1,878	
다음	18	1,858	
마크로젠	17	600	
코오롱생명과학	8	525	
안랩	9	502	
파라다이스	26	475	
씨젠	7	42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179	6,226,951	
POSCO	8,505	3,091,667	
LG전자	33,461	2,479,431	
OCI	10,109	1,718,481	
현대차	4,159	900,354	
NHN	3,573	868,150	
현대모비스	2,174	649,991	
SK하이닉스	24,519	630,14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1,429	583,941	
서울반도체	6,457	172,721	
에스엠	1,969	77,974	
덕산하이메탈	3,031	77,904	
파라다이스	3,801	71,449	
에이블씨엔씨	841	57,171	
다음	493	50,764	
위메이드	1,058	42,84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장비	4,048	금융업	-8,489
서비스업	1,595	전기,전자	-2,155
철강및금속	1,332	화학	-526
한진중공업	2,086	우리금융	-5,916
KODEX 200	2,065	KB금융	-2,256
STX팬오션	1,542	LG전자	-1,298
SBS미디어홀딩스	1,522	두산건설	-968
두산인프라코어	713	한화케미칼	-942
삼성물산	642	현대상선	-851
동국제강	593	두산중공업	-593
엔씨소프트	573	한화생명	-550
SK네트웍스	541	SK하이닉스	-544
삼성중공업	499	KT&G	-405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750	제약	-2,602
오락,문화	627	금속	-120
전문기술	600	금속광업	-118
인터파크	537	셀트리온	-2,818
파라다이스	519	네패스	-349
에이블씨엔씨	489	덕산하이메탈	-226
이엘케이	356	파트론	-202
루멘스	255	유니슨	-184
웰크론한텍	214	빅텍	-120
액트	196	씨엔케이인터	-118
네오위즈게임즈	191	인프라웨어	-104
하이비전시스템	185	3S	-96
유원컴텍	175	STS반도체	-9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02/15(금)
외국인	-1,472.2	412.8	383.8	54.7	126.0	110.3	91.0	1.8
기관계	878.4	-71.6	232.9	63.0	-152.1	247.0	22.7	52.2
(투신)	-507.5	-183.2	-65.4	5.0	-48.4	50.5	-25.9	-46.6
(연기금)	1,310.6	366.1	212.0	109.6	0.5	68.5	16.5	16.8
(은행)	-10.2	-6.2	-15.5	-6.4	-17.8	4.0	-1.5	6.2
(보험)	165.0	-164.1	-34.2	-40.8	-53.1	65.7	3.9	-9.8
개인	684.3	-392.5	-659.6	-133.2	11.9	-356.9	-122.1	-59.3
기타	-90.6	51.3	43.0	15.4	14.2	-0.4	8.4	5.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2/07(목)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31.77	1,950.90	1,945.79	1,976.07	1,979.6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6536.8	16462.3	16613.9	16852.3	16580.8
(증감액)	2735.7	1996.5	3611.7	-788.3	-74.5	151.6	238.4	-271.5
(회전율)	52.6	51.5	34.2	31.6	32.7	26.2	32.0	31.3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678.4	-31.1	174.2	102.4	-258.7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081.5	4082.0	4071.6	4055.8	4044.4
미수금	240.2	192.3	187.7	134.8	138.5	132.6	115.5	123.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2/07(목)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전체 주식형	92,970	-1,379	-906	60	-145	10	11	-54
(ex. ETF)		-1,129	-234	-34	-50	-40	32	-36
국내 주식형	67,618	-758	-703	77	-102	35	22	-45
(ex. ETF)		-516	-31	-16	-7	-15	43	-27
해외 주식형	25,352	-622	-203	-18	-43	-25	-11	-9
(ex. ETF)		-614	-203	-18	-43	-24	-11	-9
주식 혼합형	9,828	-157	-65	-7	-5	-13	-3	0
채권 혼합형	19,758	332	125	8	4	2	49	-12
채권형	47,686	523	122	293	-321	-265	-38	152
MMF	81,493	18,295	4,501	1,510	-1,013	-620	665	70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2/11(월)	02/12(화)	02/13(수)	02/14(목)	02/15(금)
한 국	-1,374	376	1,027	-	116	101	84	-2
대 만	1,440	890	728	-	-	-	-	-
인 도	7,755	3,659	728	184	0	151	-	-
인도네시아	1,114	526	393	16	54	49	37	-
태국	124	-375	237	-31	-63	28	-2	-
남아공	741	703	306	31	124	-21	144	-
필리핀	830	164	28	-1	5	21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2/07(목)	02/08(금)	02/12(화)	02/13(수)	02/14(목)	02/15(금)
회사채 (AA-)	3.29	3.08	3.07	3.06	3.08	3.08	3.07
회사채 (BBB-)	8.80	8.68	8.67	8.66	8.68	8.68	8.67
국고채 (3년)	2.82	2.72	2.72	2.71	2.73	2.73	2.72
국고채 (5년)	2.97	2.85	2.84	2.83	2.86	2.86	2.84
국고채 (10년)	3.16	3.06	3.06	3.04	3.08	3.09	3.08
미 국채 (10년)	1.76	1.96	1.96	1.98	2.03	2.01	-
일 국채 (10년)	0.80	0.77	0.78	0.75	0.75	0.75	-
원/달러	1,070.60	1,088.20	1,095.70	1,090.80	1,086.80	1,083.80	1,078.30
원/엔	1,243.73	1,160.00	1,185.00	1,162.78	1,168.73	1,159.00	1,168.00
엔/달러	86.08	93.86	92.48	93.81	92.99	93.56	92.35
달러/유로	1.32	1.35	1.34	1.34	1.34	1.33	1.33
DDR3 1Gb (1333MHz)	0.67	0.69	0.68	0.69	0.69	0.68	-
DDR3 2Gb (1333MHz)	1.07	1.36	1.36	1.36	1.35	1.30	-
NAND Flash 16Gb (MLC)	1.89	1.93	1.93	1.93	1.93	1.93	-
CRB 지수	295.01	300.95	300.71	300.63	300.56	299.67	-
LME 지수	3,454.5	3,565.8	3,568.4	3,590.6	3,591.3	3,605.8	-
BDI	699	749	746	747	751	748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5.83	96.93	97.51	97.01	96.83	-
금 (달러/온스)	1,663.40	1,671.30	1,649.10	1,649.60	1,645.10	1,635.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2월 8일	257.09	257.90	0.68	0.81	0.13	215,853	109,902	1,232
2월 12일	256.65	257.20	0.60	0.55	0.00	163,185	107,709	-2,193
2월 13일	260.92	261.85	0.59	0.93	0.83	208,032	110,557	2,848
2월 14일	261.44	262.80	0.57	1.36	0.80	256,468	104,216	-6,341
2월 15일	261.61	262.60	0.57	0.99	1.01	104,478	107,096	2,88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2월 8일	4,985	-4,112	-1,226	-2,815	902	7	493	-4
2월 12일	-3,688	698	3,050	3,087	-737	155	506	0
2월 13일	7,384	-1,805	-5,621	-5,407	-525	233	133	0
2월 14일	-957	776	-480	595	-989	54	-208	0
2월 15일	-591	331	386	316	-216	240	9	0
누적포지션	-18,694	13,742	5,900	129	3,983	1,085	13	70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2월 8일	905	911	6	833	908	74	72	4	-68	5,348	9,185
2월 12일	714	405	-309	572	400	-171	143	5	-138	5,409	9,108
2월 13일	505	757	252	500	674	173	5	84	78	5,398	9,181
2월 14일	485	698	213	392	627	236	94	71	-23	5,397	9,157
2월 15일	400	538	138	392	523	131	7	1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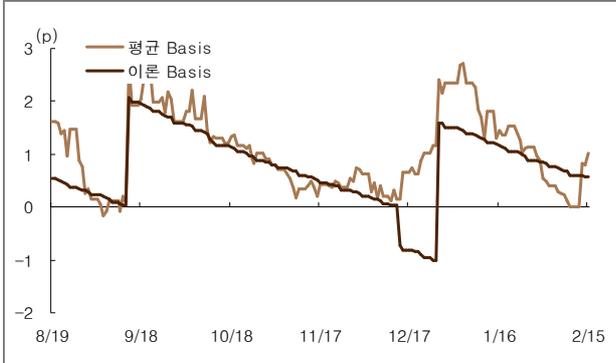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2.69	6,651	51,879	0.35	275.00	12.90	86	60	9.35
12.65	5,490	66,290	0.60	272.50	10.45	68	35	8.55
12.84	3,773	92,148	1.03	270.00	8.30	369	199	9.73
13.11	1,598	81,520	1.68	267.50	6.55	1,459	158	11.15
13.39	2,012	74,665	2.57	265.00	4.95	4,129	518	11.69
13.45	1,653	16,021	3.65	262.50	3.55	11,030	1,902	11.87
13.91	673	6,116	5.10	260.00	2.52	55,494	2,795	12.34
15.03	80	1,349	6.95	257.50	1.78	75,055	3,700	12.93
15.89	182	597	8.90	255.00	1.20	79,836	4,440	13.33
15.81	225	398	10.80	252.50	0.84	63,217	4,282	14.01
17.82	12	180	13.20	250.00	0.57	47,879	4,789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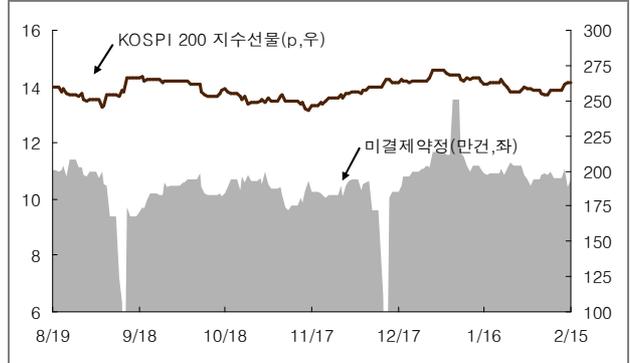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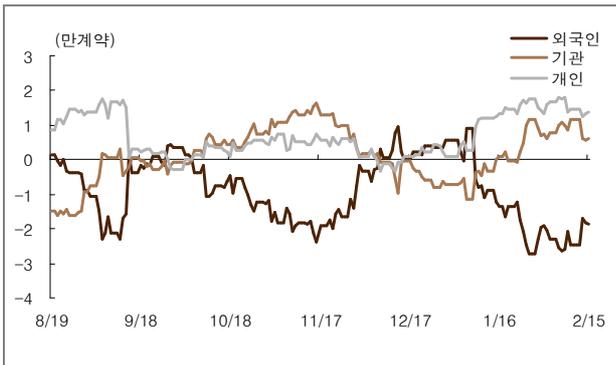
- 평균 Basis: 1.01 (전 거래일 대비 0.21 상승)
- 이론 Basis: 0.5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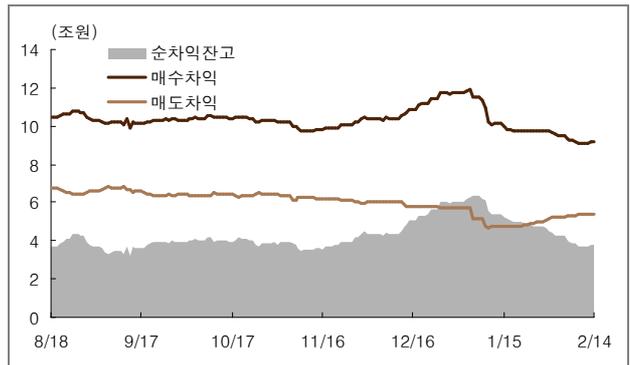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880 계약 증가한 107,096 계약
- 선물가격(262.60): 전 거래일 대비 0.2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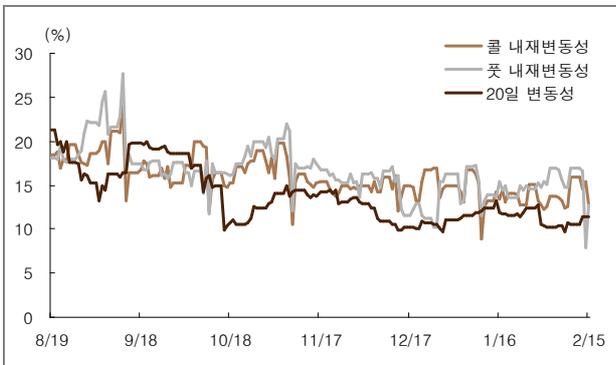
- 외국인: 591 계약 순매도
- 기관: 386 계약 순매수 / 개인: 331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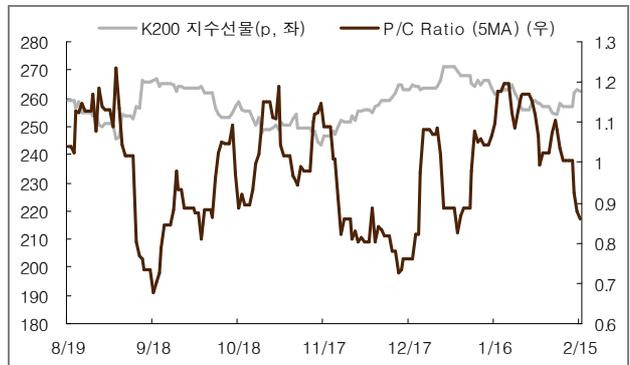
- 차익거래: 72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308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8% / 풋 12.8%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1.35%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8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2/9-15) 춘절 유럽> (2/11-12)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美>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8.9, 89.0, 88.0) 日> 1월 통화공급 M2 YoY (2.7%, n/a, 2.6%) 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43.3, n/a, 39.2) 실적발표> 美 코카콜라, 맥그로힐	韓> 1월 수출 물가지수 YoY (-8.1%, n/a, -7.2%) 1월 수입 물가지수 YoY (-10.6%, n/a, -9.0%) 1월 실업률 (3.2%, 3.0%, 3.0%)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6.4%, n/a, 3.4%) 1월 수입물가지수 YoY (-1.3%, -1.0%, -1.5%) 1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1%, 0.1%, 0.5%)	韓> 금통위 금리 결정 (2.75%, 2.75%, 2.7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1만, 36.0만, 36.8만) 유럽> 유로존 4Q GDP QoQ (잠정치) (-0.6%, -0.4%, -0.1%) 日> 4Q GDP QoQ (잠정치) (-0.1%, 0.1%, -0.9%) BOJ 정책금리 결정 (0.10%, 0.10%, 0.10%)	(2/15-16) G20 재무장관 회의 美> 1월 산업생산 MoM (n/a, 0.2%, 0.3%) 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4.8, 73.8) 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2.00, -7.78) 유럽> 12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11.5B, 11.0B) 中> 1월 실질 FDI YoY (미확정) (n/a, -4.2%, -4.5%)
18	19	20	21	22
韓> 1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5.0%) 1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0.2%)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1.2%) 유럽> (2/17) 키프로스 대선	美>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8, 47)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6.4%) 1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3.4%, 12.1%) 1월 건축허가 MoM (n/a, 1.2%, 1.0%)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5%, 1.3%) FOMC 1월 의사록 공개 유럽> 2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잠정치) (n/a, -23.1, -23.9) 日> 1월 수출 YoY (n/a, 5.6%, -5.8%) 1월 수입 YoY (n/a, 1.6%, 1.9%) 실적발표> 美 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0만, 34.1만)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7%, 1.7%) 2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n/a, 1.0, -5.8) 1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0.8%, -1.0%) 1월 경기선행지수 (n/a, 0.2%, 0.5%) 유럽> 2월 유로권 PMI 제조업 (잠정치) (n/a, 48.4, 47.9) 2월 유로권 PMI 서비스 (잠정치) (n/a, 49.0, 48.6) 실적발표> 美 월마트	실적발표> 美 휴렛 팩커드*, 노드스트롬*, 가드너 덴버, 애버크롬비&피치
25	26	27	28	1
유럽> (2/24-25) 이탈리아 조기 총선 中> 2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실적발표> 美 버크셔 해서웨이	美> 12월 S&P/CS 주택가격지수 12월 주택가격지수 MoM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1월 신규주택매매 MoM 실적발표> 韓 효성 美 오토존, 메이시스, 홈데포, 홀리프런티어	韓>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1월 경상수지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월 내구재주문 MoM 1월 미결주택매매 MoM 실적발표> 美 프라이스라인닷컴*, 퍼스트 솔라*, 티켓	韓> 3월 BSI 제조업 3월 BSI 비제조업 1월 산업생산 YoY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1월 유로권 소비자 물가지수 YoY 日> 1월 산업생산 YoY (잠정치) 1월 자동차생산 YoY 실적발표> 美 리미티드 브랜드, 콜스, 베스트바이	韓> 2월 무역수지 2월 수출 YoY 2월 수입 YoY 美> 1월 개인소득 MoM 1월 개인소비지수 MoM 2월 ISM 제조업 1월 건설지출 MoM (3/2) 2월 총 차량 판매 中> 2월 PMI 제조업 2월 HSBC PMI 제조업 日> 1월 실업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실적발표> 美 갭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